

◎ 김한규,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고구려 역사 논쟁”, 서강인문논총 43집 (2015)

1. 머리말

-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 논쟁 촉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발전 전개
(※ 2002년 2월 28일,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3성이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발족. 2003년 6월 24일 중국 공산당보인 광명일보 A3면 전체를 할애하여 변중(邊衆)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고구려역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를 시론(試論)함'이라는 글에서 고구려는 중원왕조의 고대변방민족정권이라고 주장.)

→ 윤희탁, “현대 중국의 국가주의 역사관과 고대 동북 변강사 인식”, 『북방사논총』 1호, 2004.12

- 동아시아 역사논쟁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티베트, 타이완, 몽골, 투르키스탄, 위구르, 일본-중국)

- ‘중국적 세계질서’(전통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유산

2. 한국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 논쟁

2.1. 고구려인의 기원 논쟁

-중국학계 다원설 (맥, 이, 한족 등 융합) vs. 한국학계 예맥설 (화하족 기원설 비판)

2.2. 고구려 강역 논쟁

-中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건립, 한사군 군현 안 vs. 韓 고구려의 현도군 ‘내속’=현도군을 통해 한과 교류한 것으로 해석

2.3. 고구려 번속 논쟁

- 宗藩관계=조공책봉의 성격: 중국사 편입(‘번속이론’) vs. 독립적인 외교 관계(동아시아 특유의 국제체제)

2.4. 고구려-수당 전쟁의 성격 논쟁

- 통일 국내전쟁 vs. 침략 국제전쟁

2.5. 고구려 유민 논쟁

-멸망 당시 약 69만 7천호 중 순수 고구려인은 15만=75만명, 이 중 30만 명이 당에 용화 vs. 대다수 신라, 발해로 유입

2.6. 고려의 고구려 계승 논쟁

-中 고구려-고려 연속성 부정 vs. 긍정

3. 티베트와 중국의 티베트 역사 논쟁

-1967년 쉐폰 샤카파(Tsepon Shakabpa), *Tibet: A Political History* 예일대 영문출판, 티베트 독립의 역사적 근거 제시, 큰 반향 일으킴 vs. 중국의 맞대응

3.1. 티베트인의 기원

-티베트인은 서장자치구에 국한X, 티베트고원 전역에 거주 vs. ‘장족’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중 일원이고, 티베트 고원의 여러 민족 중 일원

3.2. 당과 토번의 구생(舅甥) 화친 관계

-평등대립관계, 토번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혼인 vs. 책봉 상하관계, 정치.경제.문화적 융합

3.3 송과 티베트 지방세력의 다마(茶馬)호시

송대 티베트 대외관계 중심은 인도와 네팔. 송-티벳 사이엔 제한적 경제적 관계(호시)만 존재 vs. 토번 멸망 뒤 분열된 티베트 지방세력 일부가 송조에 귀부, 민족간 관계 더욱 밀접해짐

3.4 몽원 황제와 티베트 라마의 檀越=供施 관계

원대 이후 티베트와 중국 관계는 '최원'관계(종교적.정신적 지지와 세속적.군사적 원조의 교환; 몽원 황제가 티베트 법왕에게 통치권을 '시주'하고, 법왕은 황제의 통치를 위해 기원), 중앙-지방정권 아님, 또한 원대 중국은 거대 몽골 제국의 일부에 불과 (몽골인과 티베트 관계, 중국과의 관계 아님) vs. 몽골제국 통일로 원대부터 서장 통제 주장

3.5 명조의 법왕 책봉

-몽골과 명의 연속성 부인, 티베트 독립 주장 vs. '중건다봉(衆建多封)' '공시기미(貢市羈靡) 조공책봉, 장족-한족 관계 발전 주장

3.6 만청 황제와 달라이 라마의 단월=공시 관계

-만청 순치황제와 5세 달라이 라마간 단월=공시관계 맺음으로서, 각자 군주로 인정, 또한 청대 중국은 만청제국의 일부에 불과 (만주인과 티베트 관계일 뿐 중국과 티베트 관계 아님) vs. 청조가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를 책봉, 몽골인도 만주인도 중국인, 따라서 원=청=중국 주장

3.7 청군의 티베트 진군과 주장대신(駐藏大臣) 파견

-티베트-준가르 전쟁(1717~) 때 강희제가 라사 파병(1718, 1720)으로 준가르 제압. 후에 티베트 내부의 권력투쟁을 기회로 옹정제가 청군 파병(1727), 주장대신(駐藏大臣)과 군대를 통해 티베트 내정에 본격 간섭

-최원관계 & 외교사절로 설명 vs. 내정.외정 통제 and 흠정장정[1751년 '서장선후장정(西藏善後章程) 13조' / 1793년 '흠정장내선후 장정(欽定藏內善後章程) 29조'] 반포했으므로 지방 통치

3.8. 13세 달라이 라마의 독립선언과 구한(驅漢)

3.9. 국민당 정부의 조문 좌상(坐床) 사절 파견

3.10. '17조 협의' 체결과 인민해방군의 라사 진군

3.11. 티베트 인의 저항운동과 14세 달라이 라마의 망명

4~8. 베트남, 몽골, 동투르키스탄, 타이완, 위구르, 일본과 중국의 역사분쟁

-생략

9. 맺음말

-역사 논쟁은 현실 정치와 직결,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 비합리적 요소 개입

-고구려사 논쟁

• 종족기원: 한중이 각각 자기네 고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예맥'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요동의 역사공동체

• 강역: 한대 내군(內郡)과 변군(邊郡)의 이원화. 이적이 거주하는 변군에 대해서는 군현적 지배 관철 못 시킴. 고구려인이 현도군 거주했다라도 직접 통치 안 받음

• 종번: 商周 시대 이래 책봉-조공 체제는 나라들 간 국제적 승인과 국제사회 형성 과정에 이용된 특수한 禮적 장치. 군현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동아시아 특유의 국제 제도.

• 수당-고구려 전쟁의 성격: 북송-거란(요), 남송-여진(금) 전쟁을 국내 통일 전쟁으로 규정하

는 중국학계의 현재주의적 경향. 이들 전쟁은 내전이 아니며, 고구려-수당 전쟁은 내전도, 중국 국가와 한국 국가 간 국제전도 아님. 중국 국가와 요동 국가의 전쟁으로 보아야 함.

- 유민: 고구려 유민 대부분은 (중국도 한국도 아닌) 요동에 잔류
- 계승: 역사적 계승의식이 역사공동체의 형성에 결정적 요소이긴 하나, 고구려 인구, 영토,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을 실증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함

-역사 논쟁의 교훈

- 국가(당, 고구려, 토번, 원, 중화민국)와 역사공동체(중국, 한국, 티베트, 몽고, 돌궐, 안남, 유구)의 개념 구별: 티베트 국가는 중국 국가에 통합되었지만, 티베트 역사공동체는 유지

◦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와 ‘변강’으로 불리는 다수 역사공동체들로 구성된 통합국가 →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 바깥의 다른 역사공동체에 대한 중국인의 역사적 ‘침범’의 기획

◦ ‘중국사’의 범주를 현재 or 중국 영토가 가장 넓었던 1840년대 청을 기준으로 삼는 한, 문제

- 역사공동체 귀속(사실)과 역사 귀속(의식) 문제를 구별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모순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에 복무, 역사학이 정치에 복무하는 현상을 경계함...

◎ 김영천, “중국 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 연구동향”, 사총 66 (2008)

1. 머리말

-1998년 장춘 동북사범대학 ‘중국동북지방사 학술토론회’→2002년 동북공정 →2003년 한국 언론 노출→고구려연구재단 출범

2. 고구려사의 귀속과 대외관계

1) 고구려사 귀속에 관한 중국학계의 입장: 80년대 이전 한국사설 →90년대~2000년대초 중국사설 → 2000년대 중반 이후 一史兩用(역사공유설) 등장: 427년 평양천도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중국사, 이후는 한국사 :: 중국사설 & 역사공유설 모두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귀속시킴

2)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의 형성과 그 내용

-1950년대 ‘역사상 중국강역’ 논쟁으로 시작, 입론 과정에서 ‘통일적다민족국가론’ 등장→1980년대 재등장, 일반화

3) 중국학계의 입장 변화 추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입각, 고구려를 중국고대민족국가의 소수민족지방정권으로 규정 (주류설)

3. 조공책봉론에 따른 고구려의 대외관계

1) 조공책봉론을 근거로 한 입장

- 조공-책봉을 균형을 통한 직접지배가 아니었을 뿐, 중국황제의 통치방식으로 규정

• 고구려는 중국 역대 왕조와 조공책봉 통해 신속, 강역도 시종일관 중국의 영역 안. 따라서 지방할거정권이며, 수.당-고구려 전쟁은 통일전쟁

-후한: 180여년 간, 고구려와 전쟁은 10년에 불과. 나머지는 신속했음

-5호16국시대: 고구려는 중국북방 할거정권의 하나로 지방정권들 간의 전쟁에 참여, 중국 중앙황조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정권에 조공책봉함으로써 중앙정권에는 신부(臣附)

-남북조시기: 남북조 각각 조공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정권, 지방정권 양쪽의 관직을 받음. 고구려왕이 받은 관직은 번왕(藩王), 즉, 동북지구 관할하는 지방정권

-수.당: 전쟁 기간은 짧고, 나머지 기간은 수.당에 신복, 조공, 봉작 받음

• 고구려 대외정책의 대세는 중국 역대왕조와의 '화평신복'. 조공책봉체제는 국내 중앙-지방관계

2) 조공책봉론에 근거한 입장에 대한 비판과 자성

• 한국 학계의 비판: 실질적 지배가 관철되지 않았음. 한 고조가 흉노에 칭신했는데, 한나라는 흉노의 지방정권인가?

• 소수 중국 학계의 자성

-고구려의 남북조 외교가 160년간 화평 유지의 주요인

-조공책봉체제는 고대 중국 왕조와 주변국, 대국과 소국, 강국과 약국 간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질서

4. 변속이론에 입각한 고구려의 대외관계

1)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의 논리-변속이론의 등장 배경

• 1990년대 후반, 고구려사 연구 중심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으로 이동

-1996년 동북공정 예비작업 본격 시동: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고대중국고구려역사총론』 집필작업이 중국사회과학원 중점연구과제로 선정, 1998년 완성, 2001년 간행

-1998년 12월 장춘 동북사범대학에서 '중국동북지방 사학학술토론회': 동북3성 학자들이 고구려사와 고조선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인식 공유

• 『총론』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따라 '현재의 중국영토' 기준으로 논리 전개

-중국 왕조의 변강소수민족정권 관리제도 변천을 양한/ 위진남북조/ 수.당 시기로 나누어 설명: 중원왕조와 고구려가 신속관계 지속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지 못하는 맹점 존재

2) 『고대중국고구려역사속론』의 논리-변속이론의 내용

• 『총론』 보완 목적으로 집필된 『속론』은 이론편에서 선진~당대까지 '변속이론' 체계화 (李大龍)

-고구려는 은대 이래 중원왕조 관할을 받다가, 한대에 군현제에 귀속된 현도군 고구려현 경내에서 건국되었고, 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 판도도 기자조선-위만조선-한4군 범위에 속함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국영토로 간주

-고구려 통치 3단계: 전한 시기 직접관할→기미통치로 전환, 위진남북조 시기 기미+기타 정책, 수당 시기: 다시 직접관할 구축 시도

• 중국왕조의 변강통치기구 운용에 초점 (馬大正)

-고대 중국은 군현, 교위, 도호부 두어 주변 소수민족정권 관리

5. 고구려-수.당 전쟁의 성격

1) 최근 중국학계의 입장

- 고구려-수당 전쟁을 내전으로 파악(孫進己, 孟古託方)

2) 수당의 고구려에 대한 침략성 부정

- 수당의 고구려 정벌 목적은 영토 확장 아님: 질서유지, 기미-신속 관계 유지
- 고구려가 수제국 안정에 위협이 되었음
- 수양제의 1차 원정은 군사적 시위였음 (전면전 의도 없었음)
- 당태종이 요동 및 한반도 북부 안정을 위해 기울인 평화적 노력이 무산되자, 부득불 무력을 동원했음
- 수.당의 고구려 정벌을 고구려가 도발했음

→ 글쓴이는 중국학계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 “수.당의 패권주의에 의해 고구려에 대한 정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6. 맺음말

“‘통일적민족국가론’과 ‘신중화주의 문명사관’에 입각한 동북공정은 개혁개방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 및 향후의 동북아 정세변화,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정치적 판단과 정책적 목표가 국가주의적 역사관과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 박장배, “현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 배경”, 역사와 현실 55, 2005